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민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민주정책 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 (02) 2630-0131 FAX : (02) 2630-0141
보도자료			배포일: 2016.08.21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02-2630-0131	매수: 2매

민주정책연구원, 내년 대선 ‘3자 대결구도’ 준비해야

단일화 어려운 3가지 이유,

“①독자영토 확보 ②단일화실패 붕괴 ③18년 지방선거

민병두 원장, ‘민생정책’ 으로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2017년 대선 준비의 일환으로 새로 발간하는 정책서인 『수권정당의 길』을 통해 2017년 대선은 3자 대결구도를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은 『수권정당의 길』의 서문격인 「집권으로 가는 길 : 준비된 개혁, 성공한 정부」의 글에서 “내년 대선은 3자 대결구도”를 전제로 준비해야 하며, 그 이유로 단일화가 어려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단일화가 어려운 세가지 이유는 ①첫째,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독자영토’를 확보했으며, ②둘째, 후보단일화 압박논란의 전제조건이었던 ‘분열=필패’ 프레임이 지난 총선을 통해 깨졌으며, ③셋째, 2017년 12월 대선이 있고 6개월 이후에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병두 원장과 민주정책연구원은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대결 구도의 호불호를 떠나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3자 대결구도’를 전제로 하는 대선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해법으로 민병두 원장은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그물을 치는” 것이 대선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경제’를 양대 축으로 강조한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수권정당의 길』은 석박사급의 연구원이 공동집필한 책이다.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총선 분석(이진복), ▲유권자 정책수요조사(문병주), ▲중산층 복원 경제(이동호), ▲산업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정상희), ▲‘정규직 중심’ 관념을 넘어 ‘최대고용’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전환 필요성(고영국), ▲예산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재정민주주의(김진영), ▲대북전략의 핵심으로 ‘포괄적 상호주의’(김은옥), ▲민주화체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한상익) 등의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